

주제발표 2

지역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

김선정 (강릉시자원봉사센터장)

지역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소 장 김 선 정

I.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대한 함의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간 협력에 대한 의제는 원론적이나 기본적 의미로만 보아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고 또한 이미 광의의 시민사회 형태로 본다면 협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한편에서는 지극히 일부일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라는 보수적 색채가 짙은 역할을 하는 모임들이 과연 진보적 색채가 짙은 시민사회단체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룹들이 어떠한 형태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자생단체(사회단체라고도 불리어 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라는 개념들이 서로 모호한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또한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큰 불행이며 위험하고 소모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질적 사고만으로 서로 반목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는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통합이며,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통합이며, 세 번째로는 사회변화 동력의 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간 협력관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를 위하여 자원봉사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제자로서 자원봉사단체 및 그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 최근 자원봉사의 법적근거와 그 내용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Ⅱ. 최근 자원봉사의 소개

1. 법적근거

자원봉사의 법령근거는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8852호)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75호)에 그 법적 근거가 있으며, 기본법의 기본방향(기본법 제2조)은

-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기본법 제3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범위(기본법 제7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2.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 추진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올해부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13~'17) 추진

(2) 법적 성격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 관계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추진시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종합계획

○ 자원봉사분야의 장기비전을 고려한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3) 주요 내용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 관계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추진시책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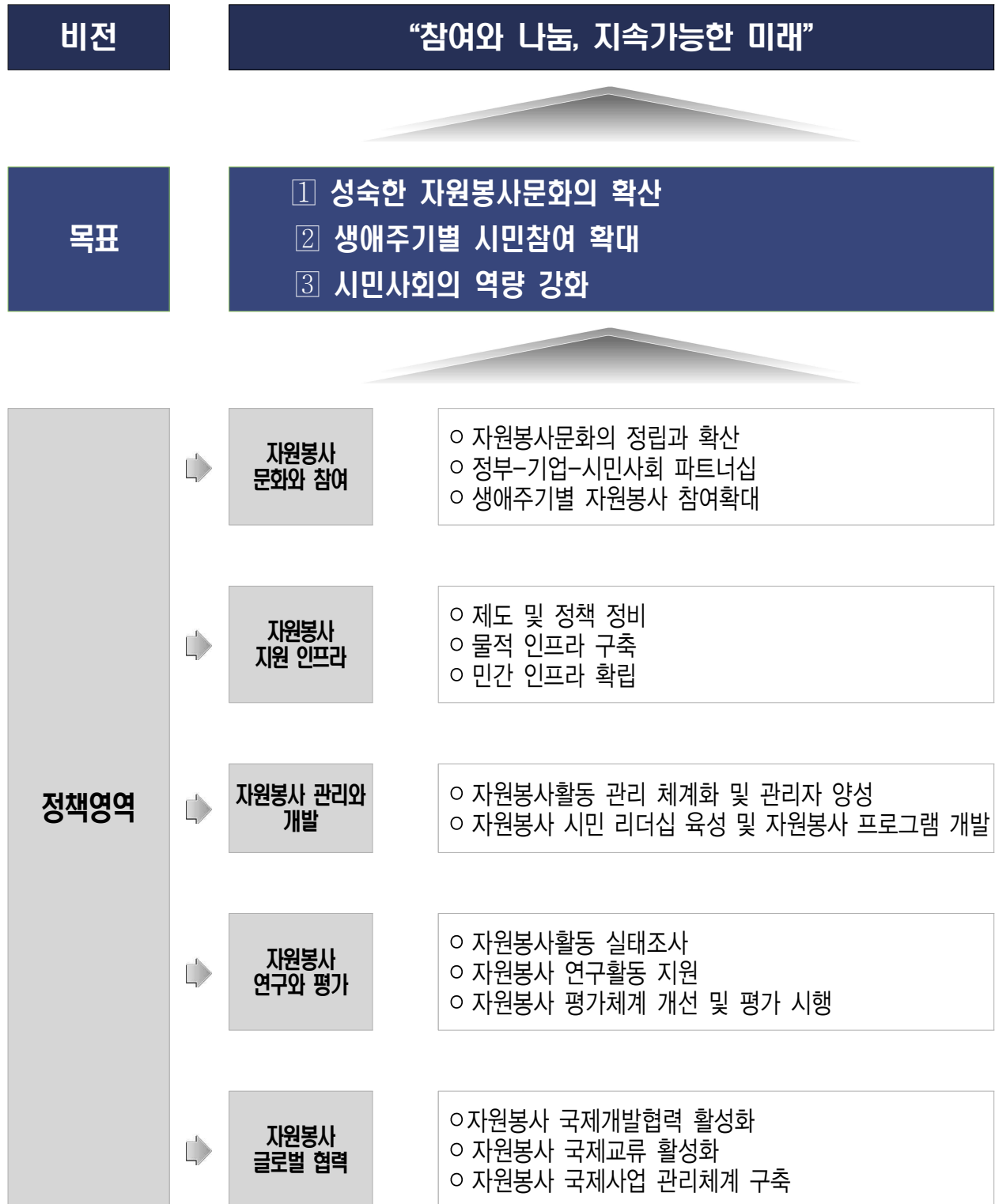
○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 1365포털(나눔포털)의 역할과 운영방향

(4) 추진 일정

○ 국가기본계획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

○ 관계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국가기본계획의 35개 세부 추진과제 시행(연중)

□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참조)

Ⅲ.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

1.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관계

우리나라 자원봉사문화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행사를 계기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형태가 아니라 관주도의 모집형 자원봉사 참여문화였으며 그 후 1997년부터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센터 설립지침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설립초기에는 기존 메이저 단체(새마을, 적십자 등)주도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의 이론적 지식기반과 인식이 부족하였고, 자원봉사문화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자원봉사에 대한 어젠더 개발이나 시민들의 참여욕구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장기적 비전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극복운동 및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환경시민연대 등 시민운동 그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으나 서로 협력관계는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중앙에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접목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판단이다.

그후 1998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이윤구, 인제대학교 총장(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강현 볼런티어 21사무총장, 이성록 교수 등 시민운동의식이 강한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자원봉사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각종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력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계에 시민운동 경험자들이 속속 참여하기 시작하고 시민들의 참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자원봉사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2. 자원봉사와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관계 설정의 한계

자원봉사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메이저 단체가 주도하였던 관계로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유지에는 엄연히 한계가 존재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이다. 이는 보편성과 잔여적 개념의 인식과 사회변화와 변혁을 위한 행동방식에 대한 차이 등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상호간 인적교류는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심해져가는 자원봉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의 개입과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정부와 자원봉사계의 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더욱 고착화 되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3.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 유지의 당위성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자원봉사는 시민들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통하여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비전이자 목적이다.

또한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지향점 또한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서로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시민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날로 확산되어가고, 그 욕구에 대하여 자원봉사계와 시민사회의 고민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에 와 있음에도 서로 소모적인 갈등관계가 유지된다면 사회적으로 소모적이고 시민들이 등을 돌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4.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

1)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협력

현대사회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와 조직이 사회적 인프라로서 활용되어지고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참여의 주도세력으로서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사회공헌활동, 풀뿌리 단체들의 자원봉사참여 확산,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 형성, 행정의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의 한계극복 및 효과기대 등 매우 다양하게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운동성과 선명성을 통한 사회변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요즈음은 시민과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두조직의 협력관계가 유지된다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과 사회적 인식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일감을 통한 화학적 협력관계유지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간은 물리적으로 협력관계나 통합활동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화학적 협력관계유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빈부의 격차, 고독사 증가, 공동체정신 복원운동, 마을운동, 환경과 관련된 지역의 공동관심사 등 지역이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공동어젠더를 개발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해결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상호간 인적교류를 통한 이해도 증진

지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사)시민,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똑똑똑 서로에게 말 걸기” 공동 워크숍은 양 조직간 협력관계유지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이 워크숍에서 주된 관심은 종사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너무 모른다 던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주 활동대상이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간 교류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해결방안으로는 자원봉사교육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에 강사 교류를 하는 방안과 종사자들 간 상호 교류방문 및 미팅을 통하여 공동관심사를 개발하고 서로 간 이해도를 높이자는 방안이 나왔었다.

4) 자원봉사센터를 중간 지원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마련

자원봉사 조직은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조직으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계속 진화되고 있으나 나름대로 한계도 가지고 있는 것과, 시민사회도 운동성과 역동성은 가지고 있으나 자원과 실천조직이 부족한 것도 사실임을 서로 인정하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사회운동의 중간지원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에는 자원봉사조직의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고, 일부 자원봉사조직과는 갈등관계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며, 시민사회조직에서도 많은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협력관계유지가 시민사회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시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5)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장(場) 마련

지역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대회나 박람회, 그리고 시민사회대축제 및 만남의 날 등 양 조직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함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IV. 나가며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들의 지상명령이라는 생각이 든다. 두 조직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일부 시민들과 만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절음발이 활동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사회발전 이면에서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 세대 · 계층 간 갈등관계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문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조적 관계를 통한 사회기여 기반조성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서로 고민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